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유림¹, 정성화², 유왕근², 한삼성²‡

¹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²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The Effects of Economic Support from Spouse on Depressive Symptoms of Working Women

Yu-Rim Jeong¹, Seong-Hwa Jeong², Wang-Keun Yoo², Sam-Sung Han²‡

¹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²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nomic support on working women's depressive symptoms, using the dataset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4th). There were 2,055 subjects. **Methods** :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association between two-income families and symptom of depression,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ous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couple activity, household labor, relationship with spouse). **Results** : Authors fou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activity ($b=-0.151$, $p<0.001$) and depressive symptom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labor ($b=0.045$, $p=0.001$) and depressive symptoms, a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with spouse ($b=-0.386$, $p<0.001$) and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spousal support in promoting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among married working women.

Key Words : Depression, Working Women, Martial Relationship, Economic Support

‡ Corresponding author : Sam-Sung Han(sshan@dhu.ac.kr) Faculty of Health Science, Daegu Haany University
• Received : Apr 18, 2017 • Revised : Jun 13, 2017 • Accepted : Jun 20, 2017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3년 50.2%에서 2015년 51.8%로 1.6% 증가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도 2015년 43.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1].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남녀의 직종 및 임금차별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서 가중되는 부담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배우자와의 관계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 후 여성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배우자와의 유대관계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2]. 일반적으로 우울은 크게 내인성 우울과 반응성 우울로 구분하여 주로 설명되고 있다. 이중 반응성 우울은 이차적 우울로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유전적 증상은 없으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3]. 따라서 배우자들의 지지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4],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여성

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5]. 또한 사회적 관계망 모델(Social network model) 이론에 의하면 배우자 지지는 정신적,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자원을 교환하는 기능을 통해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의 원천을 제공하게 되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8],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상태인 경우 경제적으로 약화된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내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9]. 또한, 배우자가 경제활동 참여를 하지 않는 홑벌이 상태인 경우에도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여성의 역할갈등에 대부분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으며[11][12][13][14], 또한 맞벌이 부부인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생활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 또는 부부갈등 등을 고찰한 연구만이 수행되었다[15][16][17][18]. 이처럼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배우자인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유무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및 우울증을 비교 고찰한 연구는[18][19]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패널(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4차년도(2011-2012) 자료를 이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배우자 관련 특성 및 우울증 지수를 각각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려된 통제변수들을 보정한 후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4차년도(2011-2012)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조사는 2006년 연구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실시된 설문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4차년도(2011-2012)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이며, 직장이 있는 여성으로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2,055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시행되었다.

2.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로 여성가족패널조사 측정항목에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1) 종속변수: 우울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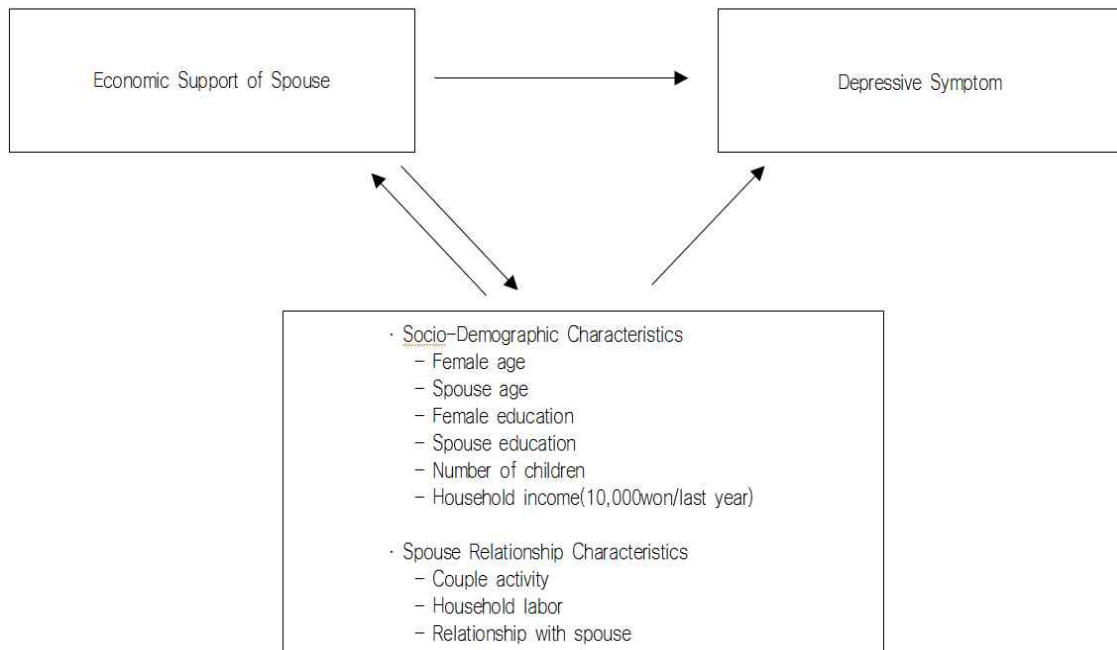
우울증 지수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10문항으로 축약한 CES-D10 설문항목의 응답을 모두 합산한 점수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우울증 지수는 0에서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고려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는 직장이 있는 기혼여성 2,055명 중 배우자인 남편이 직장이 있는 경우 '맞벌이', 직장이 없는 경우 '홀벌이'로 구분하였다.

3)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배우자 관련 특성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우자 관련 특성을 포함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연령과 학력, 배우자인 남편의 연령과 학력, 자녀 수, 지난해 가구 총소득 등의 항목을 고려하였다. 배우자 관련 특성으로는 지난 한 달간 부부가 함께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이하 '문화 활동'이라 한다)',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이하 '운동'이라 한다)',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하기(이하 '봉사'라 한다)',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들 만나기',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형제들 만나기'의 5점 척도로 된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활동을 자주함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지난 한 달 동안 배우자가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와 쇼핑, 집안 청소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거의 매번', '일주일에 4-5일', '일주일에 2-3일', '일주일에 1일', '그보다 드물게', '전혀 하지 않음'의 6점 척도로 된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를 많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 한다.', '남편을 신뢰한다.'의 4점 척도로 된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과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Figure 1> Study Design

3. 자료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벌이 여부의 분포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2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에 따른 직장여성의 배우자 관련 특성 차이 그리고 우울증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고려된 통제변수를 보정한 후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III. 연구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벌이 여부의 차이

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기혼 직장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맞벌이 비율은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홀벌이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배우자인 남편의 연령은 낮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홀벌이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학력은 기혼 직장여성이 대졸인 경우 남편과의 맞벌이 비율이 높았고,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홀벌이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배우자인 남편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 맞벌이 비율이 높았으며, 종졸이하인 경우에는 홀벌이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3$). 자녀수는 1명인 경우, 홀벌이에 비해 맞벌이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2$). 한편, 기혼 직장여성의 가구소득은 맞벌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wo-income families N(%)

Characteristics	N	Two-income family		$\chi^2(p)$
		Non-dual income	Dual-income	
Total	2,055	284(100.0)	1,771(100.0)	
Female age(years)				
≤30~39	405	32(11.3)	373(21.1)	
40~49	735	73(25.7)	662(37.4)	52.650 (<0.001)
50~59	550	95(33.5)	455(25.7)	
≥60	365	84(29.5)	281(15.8)	
Spouse age(years)				
≤30~39	269	21(7.4)	248(14.0)	
40~49	646	54(19.0)	592(33.4)	49.289 (<0.001)
50~59	576	92(32.4)	484(27.3)	
≥60	564	117(41.2)	447(25.3)	
Femal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61	81(28.5)	380(21.5)	
Middle school	268	41(14.4)	227(12.8)	19.305 (<0.001)
High school	760	113(39.8)	647(36.5)	
≥College	566	49(17.3)	517(29.2)	
Spous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32	60(21.1)	272(15.4)	
Middle school	256	42(14.8)	214(12.1)	10.772 (0.013)
High school	742	101(35.6)	641(36.2)	
≥College	725	81(28.5)	644(36.3)	
Number of children				
0	218	34(12.0)	184(10.4)	
1	1,079	123(43.3)	956(54.0)	12.884 (0.012)
2	445	69(24.3)	376(21.2)	
3	178	32(11.3)	146(8.2)	
≥4	135	26(9.1)	109(6.2)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2,000	408	51(18.0)	357(20.2)	
2,001~3,000	306	41(14.4)	265(15.0)	1.561 (0.816)
3,001~4,000	424	59(20.8)	365(20.6)	
4,001~5,000	301	40(14.1)	261(14.7)	
≥5,001	616	93(32.7)	523(29.5)	

맞벌이 여부에 따른 배우자 관련 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부활동은 맞벌이인 경우가 기혼여성만 직장이 있는 홀벌이인 경우에 비해 부부활동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4). 부부활동의 세부요인들을 살펴보면, 여성만 직장이 있는 홀벌이인 경우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문화 활동(P=0.030), 시댁식구 만나기 (P=0.006)와 친정식구 만나기(P=0.0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부가 함께 운동하기와 봉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른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세

부요인들 중 식사요리준비와 세탁, 쇼핑 및 집안청소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설거지의 경우 맞벌이에 비해 여성만 직장이 있는 홀벌이인 경우에 배우자인 남편의 설거지 도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6). 배우자와의 관계는 기혼 여성만 직장이 있는 홀벌이에 비해 맞벌이인 경우에 배우자인 남편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배우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부요인들 중 남편과의 견해 (P<0.001), 남편과의 대화(P<0.001), 남편과의 성관계(P<0.001), 남편에 대한 신뢰(P<0.001) 등이 홀벌이인 경우보다 맞벌이인 경우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Spous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two-income families

Characteristics	Two-income family		t	P-value
	Non-dual income	Dual-income		
Couple activity				
Cultural life with one's husband	1.23±0.58	1.32±0.69	-2.173	0.030
Exercise with one's husband	1.58±1.10	1.65±1.11	-0.881	0.378
Volunteer activity with one's husband	1.09±0.42	1.09±0.44	0.023	0.982
Visiting with one's in-laws	1.52±0.98	1.71±1.09	-2.769	0.006
Visiting with own parents	1.44±0.88	1.60±0.97	-2.507	0.012
Total	6.84±2.63	7.37±2.72	-2.890	0.004
Household labor				
Food preparation	2.24±1.58	2.08±1.40	1.755	0.079
Dishwashing	2.48±1.65	2.22±1.43	2.761	0.006
Laundry	1.99±1.32	1.87±1.17	1.496	0.135
Shopping	2.10±1.23	2.13±1.08	-0.491	0.623
House cleaning	2.51±1.56	2.47±1.42	0.532	0.595
Total	11.31±6.53	10.77±5.59	1.495	0.135
Relationship with spouse				
Satisfactory conversation with one's husband	2.62±0.71	2.87±0.67	-5.875	<0.001
Consensus of opinion with one's husband	2.47±0.76	2.63±0.76	-3.259	0.001
Satisfaction with sexual activity	2.68±0.69	2.93±0.56	-6.649	<0.001
Trust in one's husband	2.93±0.67	3.12±0.56	-5.179	<0.001
Total	10.71±2.23	11.56±1.90	-6.806	<0.001

맞벌이 여부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에서는 남편이 직장이 있는 맞벌이인 경우에 비해 기혼여성만 직장이 있는 홀벌이인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증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2).

<Table 3> Spous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of two-income families

Categories	Two-income family		t	P-value
	Non-dual income	Dual-income		
Depression	7.77±3.12	7.08±3.49	3.148	0.002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Depression: F=7.156, P<0.001), 또한 고려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우울증(R²=0.067)의 변동을 6.7% 설명하였다. 고려된 통제변수들 중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부활동(b=-0.151, P<0.001), 배우자의 가사노동(b=0.045, P=0.001), 배우자와의 관계(b=-0.386, P<0.001) 등으로 부부활동이 많을수록, 배우자인 남편의 가사노동이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장여성의 우울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맞벌이 여부, 직장여성의 연령 및 학력과 배우자인 남편의 연령 및 학력, 자녀수, 가구소득 등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Characteristics	Depression	
	b	P-value
Two-income family		
Non-dual income†		
Dual income	-0.328	0.136
Female age(years)		
≤30~39†		
40~49	0.406	0.156
50~59	0.144	0.722
≥60	0.142	0.779
Spouse age(years)		
≤30~39†		
40~49	0.048	0.882
50~59	0.075	0.856
≥60	0.044	0.932
Femal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091	0.779
High school	-0.134	0.713
≥College	0.098	0.820
Spous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337	0.290
High school	0.145	0.666
≥College	0.311	0.423
Number of children		
0†		
1	-0.202	0.422
2	-0.562	0.051
3	-0.685	0.063
≥4	0.009	0.982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2,000†		
2,001~3,000	0.307	0.226
3,001~4,000	0.119	0.609
4,001~5,000	0.170	0.505
≥5,001	0.049	0.818
Couple activity	-0.151	<0.001
Household labor	0.045	0.001
Relationship with spouse	-0.386	<0.001
F-value	7.156	
P-value	<0.001	
Adjusted R ²	0.067	

†Reference category

IV. 고찰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4차년도(2011-2012) 자료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는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직장이 없는 홀벌이인 직장여성에 비해 남편이 직장이 있는 맞벌이의 직장여성인 경우 우울증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남성 중심적인 가족생활 행태와 남녀 간의 역할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20].

즉,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역할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통해 기혼 직장여성의 역할 양립 중 경제적인 부담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한편,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이 없는 남편의 경우, 맞벌이하는 직장이 있는 남편에 비해 기혼 직장여성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가사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남편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결과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직장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남편이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가정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 직장여성의 가구 소득은 맞벌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의 노동 소득 중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기여도 비중이 높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21], 기혼 직장여성의 가구 소득만이 맞벌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 남편의 직장 유무를 보정했음에도 배우자인 남편의 가사노동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은 단순히 양과 시간의 분담에 초점을 둔 역할 수행보다는 배우자와의 원활한 상호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2][22].

직장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우자 관련 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울증은 부부활동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장여성의 우울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부활동을 통한 서로의 지지로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20], 과거에 비해 가구원 수의 감소로 배우자와의 활동 및 지지는 여성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므로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빈도가 잦은 경우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직장여성의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도와줄수록 우울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기혼 직장여성들은 가정의 경제력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적이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사분담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되어있으므로 역할수행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오히려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여성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높고,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다고 인지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22]. 이는 한편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여성

의 인식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가사분담 갈등이 증가하게 될 경우 여성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회피적 대처를 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이 완화되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24]. 또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직장여성에게 유의한 요인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에게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25]를 비추어 볼 때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남편일수록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 등 경제활동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와 우울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를 고찰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살펴보았다(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음).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beta=-0.221$), 부부활동($\beta=-0.119$), 배우자 가사노동($\beta=0.0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울증에 미치는 요인들 중 배우자와의 관계, 부부활동, 배우자 가사노동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그 영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25]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있어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보다 배우자로부터의 경제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 설계가 횡단면 연구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인 원인-결과(causality)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횡단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혼 직장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기간을 고려한 종단연구나 실험-대조군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사회적

적 관점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V. 결론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직장가정의 양립에서 가중되는 부담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및 부부활동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사노동의 경우 단순한 시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분담이 아닌 배우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혼 직장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 및 돌봄 문제, 결혼기간,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역사회는 기혼 직장여성의 역할 양립에서 오는 부담완화와 배우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2013),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ata and Regional employment survey data, <http://www.index.go.kr>
2. H.J. Lee, E.K. Seo, Y.R. Jeong, I.S. Nam, S.S. Han(2015),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Wome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9(2);69-79.
3. J.E. Birren, K.W. Schaie(1990),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Academic Press, San Diego, pp.48-56.
4. J.H. Choi(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 Maternal Depression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Seoul Women's University, pp.48-56.
5. O.R. Ha, J.H. Kwon(2006), Mental Health and Role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Role conflict, perfectionism, and Family/Spouse Suppor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25(3);675-696.
 6. S. Cohen, T.A. Wills(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2);310-357.
 7. M.S. Lee(2010), Chronic Diseases, Depressive Symptoms and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in Korean Elderly Population,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27(-);5-30.
 8. S.L. Lim, J.H. Kim, D.S. Lee, E.Y. Kim(2000), Women's Job Stress, Coping Resources and Mental Health-In the Sample of Female office Worker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9(6);999-1009.
 9. F. Jones, B. Fletcher(1993), An empirical study of occupational stress transmission in working couples, Human Relations, Vol.46(7);881-902.
 10. J.H. Park(2009), The Impact to Employment Choice by Married Women under her Spouse's Non-employment Status, Korea Labor Institute, Vol.9(2);46-65.
 11. S.N. Yang(2011), Strategies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The Experiences of Full-Time Working 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19(1);103-126.
 12. J.H. Lee, E.H. Lee(2000),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upon Multiple Role Conflicts and Depression within Dual Employed Couple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2);287-303.
 13. Y.S. Lee(2010),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for Married Workers: Negative, Positive and Global Spillover,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3(2);1-31.
 14. S.C. Choi, J.M. Woo, W.S. Park, S.A. Kim(2009), Work-Family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Two-Income Family,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21(1);10-17.
 15. K.H. Kim, J. Kong(2014), A Study on Time Us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Family and Culture, Vol.26(4);139-165.
 16. O.J. Park, J.H. Yeo, Y.J. Kwan, Y.S. Youn(2015), The effect of spouse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Mediation effect of communication,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Vol.12(2);99-119.
 17. G.S. Yoo, S.H. Kang, A.R. Oh, J.H. Lee(2011), Effect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Famil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15(1);117-136.
 18. M.S. Shin, K.H. Ok(2014), Th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Regarding Their Employment Status: The Mediation Effect of the Spouse's Household Labor and Shared Coupl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9(1);5-25.
 19. J.E. Yoon, H.J. Jun(2009),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Mental Health among Middle and Older Adults: The mediation effects of Income Level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9(2);743-759.
 20. S.S. Han, S.H. Jeong, S.W. Kang, W.K. Yoo(2014),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Middle and Old-Aged Peop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2);197-208.

21. P.U. Choi(2013), Analysis on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Husband-Wife Labor Income and Employment Ratio,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36(3);97-128.
22. Y.J. Ho, Y.A. Oh, M.S. Lee(2015), The Effects of Childcare Type and Sharing Housework on Depression Level among the Married Wome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41(2);77-87.
23. S.J. Kim, S.Y. Kim(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Intimacy, Depression, and Menopaus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9(3);176-187.
24. I.S. Lee(2002), Depression and Husband's Support in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8(4);482-493.
25. H.Y. Lee, E.O. Park(2016), Effects of Housework Burdens and Social-family Supports on Poor Self-rated Health among the Marri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4);179-196.